

李箕永의 初期 農民小說 研究

金英希*

目 次

1. 序 論
 - 가. 연구 목적
 - 나. 연구 방법과 범위
 - 다. 연구사
2. 李箕永 初期 農民小說의 背景
 - 가. 프로문학과 농민소설의 관계
 - 나. 20, 30년대의 農村社會의 窮乏化 現像과 農民의 삶
 - 다. 李箕永의 幼年時節의 體驗과 文學意識
3. 李箕永 初期 農民小說의 特性과 展開 樣相
 - 가. 農民의 批判的 現實 認識과 自覺의 世界
 - 나. 農民의 集團意識의 生成과 抵抗의 具體化
 - 다. 農民의 積極的 集團 對應과 展望의 提示
4. 李箕永 初期 農民小說의 文學史的 意義
5. 結 論

1. 序 論

가.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920-30년대 한국 프로 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리얼리즘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던 민촌 이기영의 농민소설의 배경과 전개양상을 시대상

*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황과 관련하여 고찰하는 데 있다.

한국문학사에서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은 매우 복잡하면서 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제 침략이라는 민족사적 운명과 더불어 근대문학사는 프로레타리아 문학과 그 대립 개념으로서의 민족주의 문학이라는 두 축으로 구분되어지기 때문이다. 현실에 대한 부정과 개혁의지를 가지고 출발한 한국의 프로레타리아 문학운동은 192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당시 세계적인 조류인 사회주의 사상이 한국에 수입되자, 그것은 곧 노동자, 농민의 변혁의지와 결합하게 되었고 후에 민족해방운동의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유행처럼 농민소설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기영의 초기 농민소설도 이러한 카프 문학운동의 성쇠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더구나 오늘날 이기영 소설의 연구자들이, 1930년대 후반 프로문학운동이 쇠퇴하자 이기영 소설들에 나타나는 문학적성과 사상성도 따라서 퇴조했다고 지적하고 있음은, 그 당시의 프로문학운동의 관점을 떠나서는 그의 소설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무력해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기영에 대한 평가는 그의 문학적 전성기나 오늘날이나 거의 일관된 모습이다. 즉, 당대 프로문학가들 사이에서도 가장 비중있는 작가로 평가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문학적 형상성이 높은 농민소설의 작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는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는데 그것들은 첫째, 그의 소설이 리얼리즘의 창작 방법에 토대를 두고 카프의 운동 노선에 충실한 소설을 썼다는 점¹⁾과 둘째, 정치 투쟁, 목적 의식만 앞세웠던 당시의 프로 작가들과는 달리 농촌에 토대를 둔 개인적 체험에 근거한 비교적 문학적성이 높은 작품들을 발표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의 농민소설들은 식민지하인 1920~30년대의 한국의 실상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서 민족문학으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점 등이다.

본고는 이러한 몇 가지 사항에 주목하면서 짚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문학사를 통시적으로 살펴볼 때, 카프문인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작은 영역이 아

1) 김승환, 『해방공간의 현실주의 문학 연구』, (일지사, 1990)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이기영 소설에 대한 연구는 일천한 실정이라서 단편적으로만 언급되어 왔을 뿐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 이유는 지난날의 문학 외적 요인으로 인한 연구의 공백이 당시의 문학운동에 대한 몰이해를 낳았고 이기영 소설들에 대한 연구도 자유롭지 못하여 한국 농민문학사를 보다 깊고 폭넓게 연구하는 데 큰 제한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우리 농민 소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농민'을 일정한 역사적 단계에 있어서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지닌 존재인 농민으로, 농민소설에 반영되는 '농민생활' 역시 일정한 역사적 단계에 있어서 일정한 사회적 조건에 구속된 구체적 생활²⁾로 파악한다면 이기영 농민소설은 이제 비로소 역사성과 현재적 의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이다.

위와 같은 토대에서 본고는 1930년대 전후의 이기영의 농민소설을 고찰하기 위하여 우선 당시 농민소설들이 시대상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시대 상황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려 한다. 프로문학의 수입이 설령 외부적인 것에 치중되긴 했지만 그 사상의 전개가 식민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관련해 당시 수탈이 가장 심하게 자행됐던 한국의 농촌현실과 카프 문학운동을 이해하는 것은 이기영 농민소설의 특성과 전개양상을 고찰하는 데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밝혔던 또 하나의 목적인 초기 농민소설의 특성과 변모양상을 실제 작품을 통하여 구명하려 하는데 이것은 시기별 변모양상을 항목별로 세부화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이기영 소설들의 중요한 특징인 작중인물과 사상, 기법은 미학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주지하듯, 예술 형상이 생활의 본질적 진실을 반영해야 함은 물론이고 생활 자체의 형식에 따라 현상적 진실과 본질적

2) 류양선, 「1930년 전후의 한국농민문학론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P.6.

진실이 예술 형상 가운데서 통일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라면 이기영의 소설에 나타난 리얼리즘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는 그의 농민소설의 미학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카프의 사상의 전개에 따른 문학 이론의 변모, 농촌사회에 자본주의 문명이 침투하는 과정, 그에 대한 대응을 작품의 전개과정을 통해 고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농민문학 일반론을 둘러싼 논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특히 그의 소설의 특성을 통하여 문학과 사회, 내용과 형식의 상호영향관계를 밝히려는 의도와 관계된다.

이러한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기영의 소설이, 우리 근대 문학사와 소설론의 체계 속에 어떻게 자리잡을 수 있는가도 저절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기영의 초기 농민소설에 대한 연구는 그의 개인사를 회복하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1920~30년대 한국의 농민소설의 주류를 설정하는 문학사적인 측면, 그리고 프로문학의 이론과 창작의 역사적 성격을 구명하는 작업과도 연관을 갖게 된다.

나. 연구 방법과 범위

民村 李箕永은 1924년 부터 1945년 까지 대략 小説 100여편, 戯曲 2편, 評論 60여편을 발표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월북하여 북한에서 100여편의 작품을 창작했다고 전해지고 있다.³⁾ 이러한 외형적 사실들은 이기영의 문학 유산이 양적으로 적잖음을 말해준과 동시에 그의 작가적 역량 또한 여타 작가들에 비해 뒤지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 문학사에서 그가 끼친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기영은 당대의 여느 작가에 못지 않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은 이기영의 농민소설 중 문학적 형상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3) 권영민 「월북 작가 및 작품 연보」, 『월북 문인 연구』, (문학사사, 1989) P.404~411.
「한국근현대민족문학총서, 이기영전집」, 「작품연보」, 풀빛, 1989. P.466~474.

1924~1934년 까지의 초기 작품이다. 1934년 이후에도 작가가 농민소설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 시기로 국한한 것은 확립되지 않은 그의 문학세계를 일정한 영역에서나마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이기영의 카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카프의 왕성한 운동기와 작가의 세계관의 변모양상을 알기 위한 의도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에 발표되었던 이기영의 소설들 중에서도 전체 작품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초기 농민소설 중에서 작품의 내적 연관성과 시기를 고려해서 각각의 유형을 고찰할 수 있는 작품을 두 편씩 선정하고 세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려 한다. 이 구분은 본고에서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선택한 것인데 카프의 변모와 당대 한국 내부의 상황 변화를 고려하고 문학이론의 수용과도 관련하여 설정한 구분이므로 문학운동사적인 측면이 부분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2장에서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고찰로서 이기영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1930년대 전후의 시대 상황과 그의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체험이 농민소설에 반영되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의 농민소설에는 농민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거나 또는 농민의 속성이나 특수성을 적절하게 묘사한 부분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당시의 실상과 소설화 과정을 실증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장은 이기영의 초기 농민소설의 전개과정을 작품들을 통하여 고찰하려 한다.

여기에서는 각 시기별의 작품을 3단계로 구분하고 농민소설의 내적 변모 양상과 프로 문학운동의 문학적 형상화라는 사회·역사적 의미를 구명하고 이 시기의 이기영의 농민소설들에 사회경제사적 토대인 하부구조와 소설적으로 형상화된 상부구조가 동질성을 띤다는 전제에서 그것의 본질도 함께 밝혀 보고자 한다.

제4장은 제2장과 제3장에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씌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이기영의 농민소설이 한국 근대문학사 속에서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다. 연구사

지금까지 이기영의 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0, 60년대의 냉전체제로 해서 다른 월북작가나 프로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농민소설 중에서도 李光洙, 沈薰, 李無影 등 민족주의 측의 농민문학에 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가능했으나 오늘날까지도 이기영에 관한 연구는 일천한 상태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월북작가들에 대한 해금조치가 취해지고⁴⁾ 카프 문인들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각도에서 시도되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간간히 진행되어온 성과들로 그의 정립되지 않는 연구사를 재구해 보기로 한다.

그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략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그가 월북하기 전인 1950년 이전의 비평들이다. 주로 카프의 지도 이론에 따른 개별 작품론들과 감정적이고 피상적, 주관적인 인상 비평이 대부분이다. 이 시기는 아직 작가가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였고 카프내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때이므로 당시의 평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기의 이기영의 문단 활동이나 카프와의 관계, 문우관계, 세계관 등을 파악할 수가 있다.

1926년 윤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작품론이 있으나⁵⁾ 구체적인 작품론은 1931년부터 안함광이나 백철에 의해 농민문학론이 대두되면서 활발하게 쓰여졌다.⁶⁾

민병휘의 「民村의 故郷論」⁷⁾은 매우 주관적이며 감상적인 비평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故郷」이 농촌을 중심으로 생겨진 자본주의 시기 농촌 전경을 누구보다 잘 그렸고 그 속에 움직이는 인물들의 가는 길을 너무나 사실대로 그렸다고 거듭 찬미하고 있다. 그리고 박승극은 이기영의 작품 구조적인 측면에의 접근을 시도

4) 1988년 7월 월북 문인에 대한 대규모 해금조치가 취해졌으나 북한에서 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 조소문화협회·조소친선협회 위원장 등의 고위 직책 역임 경력 때문이라는 이유로 이기영은 홍명희, 한설야 등과 함께 미해금작가로 남아 있다.

5) 윤기정, 「이기영의 창작집 <민촌>을 읽고」, 조선일보, 1928, 3.20-23

6) 안함광, 「로만 논의의 제과제와 <고향>의 현대적 의의-장편소설 검토」, 인문평론 13, 1940.11.

7) 민병휘, 「민촌의 고향론」, 백광, 제3호, 1937년 3월.

하고 사상, 작품, 문장 등으로 나누어 그의 작품 세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그를 성실하고 진실한 혼의 소유자로서 일반 문인과 크게 구별된다고 평가하고 있다.⁸⁾

이외에도 현민, 송영, 박영희, 유진오, 한설야 등은 공통적으로 이기영이 지닌 인간적 매력을 거론했는데 매우 주관적이며 개인적 친분에 따르는 정실비평이 대부분이다.

金南天은 작품 구조적인 측면의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시도했는데 그는 자신의 관점을 객관적이며 예리하게 드러내면서 동시에 작품에의 사상적 변모까지 추출해내는 안목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이기영 농민소설의 문학사적 위치에 관한 글들이다. 이기영 농민소설에 대한 분석은 20~30년의 공백 속에서 개론서, 통사 등의 카프 문단을 기술하는 자리에 혹은 민족주의 농촌문학을 거론하는 자리의 맞은편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다가 지난 70년 김윤식이나 이재선, 정한숙, 조연현 등의 문학사를 통하여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호웅, 이주형, 서경석, 한형구, 오양호 등에 의해 비로소 조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이기영의 문학사적 의미가 농민소설에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 리얼리즘 소설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개별적인 작품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⁹⁾

8) 박승극, 「이기영 검토」, 풍림 제6호, 1937년 5월.

9) 김윤식, 「문체적 인물의 설정과 그 매개적 의미」,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81. 「한국리얼리즘 소설 연구」, 탑, 1987.

정호웅, 「1920~30년대 한국경향소설의 변모과정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3.

정호웅, 「경향소설의 변모과정」, 『한국 리얼리즘 소설 연구』, 탑, 1987,

「이기영론— 리얼리즘 정신과 농민문학의 새로운 형식」, 『한국 근대 리얼리즘 작가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8.

이주형, 「1920년대 한국 프로문학의 한계」, 경북대 논문집 20, 1975.

이주형, 「1930년대 한국 장편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4. 2.

서경석, 「1920~30년대 한국 경향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7. 2

서경석, 「리얼리즘 소설의 형성」, 『한국 리얼리즘 소설 연구』,

한형구, 「1930년대 리얼리즘 소설의 성격」, 한국학보 48, 일지사, 1987, 가을

한형구 「〈고향〉론」, 『월북 문인 연구』, 탑, 1987

김윤식,¹⁰⁾ 정호웅, 이주형, 서경석, 한형구 등은 서구의 이론을 도입하고, 루카치 소설 이론에서 나오는 전형, 문제적 인물, 전망 등에 근거하여 1930년전후의 농민 소설의 인물과 구조를 이론화하는 업적을 남겼다. 또한 박대호, 이재선, 오양호¹¹⁾ 등은 그레마스, 바흐진 등의 구조주의 이론을 원용, 이기영의 농민소설의 구조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와는 달리 김병광, 신춘호, 김준, 조남철¹²⁾ 등의 논문은 30년대 농민소설을 폭 넓게 다루는 자리에서 문학사의 한부분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드러나는 대략 세 가지의 유형에서는 문혀진 역사를 객관적으로 복원한다는 일정한 문학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인물, 즉 주인공의 성격의 측면에 논의를 집중시킴으로서 「民村」에서부터 「故郷」에 이르는 그의 작품들 상호간의 텍스트 관계가 제대로 해명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은 이기영의 작품 세계의 변모에 대한 일관된 논리의 틀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으며 그 결과 이기영의 농민소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지도 못했다. 그것은 연구 방법론에도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이 원용했던 유물론, 루카치 소설론, 구조주의 등이 과연 1920년대의 카프소설에 적용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은 오래도

10) 김윤식, 문제적 인물의 설정과 그 매개적 의미, 한국 근대 문학 사상 비판, 한국 리얼리즘 소설 연구, 탐, 1987.

11) 박대호, 「근대 사회의식 소설의 세계관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5, 8
이재선, 「반항의 시학과 상상력의 제한— 이기영의 <고향>론」, 세계의 문학, 1988, 겨울.

오양호, 「이념지향적 작품군의 구조적 특징」, 『농민소설론』, 형설출판사, 1984.

12) 김병광, 「초기 농민소설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 90, 국어국문학회, 1983.

신춘호, 「한국 농민소설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0.

김 준, 「한국 농민소설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조남철, 「일제하 농민소설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록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업적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반성하면서 그의 농민소설의 변모 과정의 논리성을 파악하는 데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려한다.

2. 李箕永 初期 農民小說의 背景

“경험적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형식”¹³⁾으로서의 시간성 *zeitlichkeit*과 공간성 *raumlichkeit*은 현실의 객관적 반영 구조로서의 소설 속에도 반영된다. “전형적 상황 아래서의 전형적인 성격의 충실한 재현”¹⁴⁾을 예술적 목표로 하는 리얼리즘 소설에 있어서 개인의 삶은 객관적 현실로부터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다양한 변화와 사회적 실천의 과정과 연관을 맺고 있다.

1920~30년대 한국의 인구 비율 중 80%가 농민이었다는 사실은 당시 농민의 문제가 곧 민족의 문제였고 카프진영의 농민소설들이 역사성을 띠게 된 근거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민소설’의 개념의 문제이다. 1920~30년대

13) v. i. lenin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 정광희 역, 아침, 1988, P.186.

14) F. Engels, 「Engels to Margaret Harkness in London」, 「On Literature and Art」, Progress Publisher, Moscow, 1978, P.90

한국사회에서 산출된 일련의 농촌을 다룬 소설들에 대해 기존의 논문들은¹⁵⁾ '농민소설', '농촌소설'의 두 가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본고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그 경우를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재적인 측면을 고려한 구분으로 '도시소설'의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소설, 즉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설을 말하는 경우.

둘째, 소재보다는 주제를 강조한 개념인데 당대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발생하는 농민들의 삶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사회 발전의 핵심계층인 농민을 중심으로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실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설을

15) '농촌소설'과 '농민소설'의 개념을 구분한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이재선, "농촌문학이라는 용어가 다분히 소재적이고 배경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농민문학이라는 용어는 농민의 농민다운 노동의 생활상이나 곤경 또는 집념과 같은 감정영역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문학"이다.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81, P.353.)

신춘호, "농촌 취재소설은 그 소재를 농촌에서 가져왔을 뿐 주인공이 농민이 아닌 소설이다. 그러나 농민소설은 그 배경이 농촌임을 물론 주인공이 반드시 농민이어야 하고 농민들의 생활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국농민소설 연구』, 고대 박사학위논문, 1980, P.12.)

백철, 농민소설의 조건으로 농민이라는 주인공과 농촌을 작품배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민소설과 계몽주의』, 세대 16호, 1931, 9, P.80.)

김준, 농촌소설과 농민소설의 개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소재와 주제 그리고 시대적 삶의 반영문제를 들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선명한 주제의식의 표출이라 말한다. (『한국농민소설연구』, 태학사, 1990, P.30.)

류양선, "농민문학은 농민현실의 변화를 궁극목적으로 하는 농민문학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형상형태로 존재하면서, 민족 민중현실의 변화를 궁극목적으로 하는 민족민중문학운동의 형상형태로 존재하는 민족 민중문학의 부분문학이다." (『1930년 전후의 한국농민문학론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8. P.8.)

홍기삼, "단순히 농촌, 또는 농민의 이야기를 단순한 소재 또는 배경으로 그려 준 작품과 농촌 혹은 농민을 그리되 한 시대의 전모를 진지하게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문학은 구분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민 문학론』, 신경림 편, 온누리사, 1983.)

말하는 경우.

위와 같이 구분해본다면 첫째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농촌소설'이며 첫째와 둘째의 경우를 다같이 포함하는 것은 '농민소설'이다. 이외에도 30년대 후반에 등장하는 김유정이나 박영준의 소설들은 농촌소설 속에서도 이광수의 '흙'이나 심훈의 '상록수'와는 구분되는 개념 규정이 따로 필요하리라고 여겨진다. 위의 규정에 의하면 '농민소설'은 '농촌소설'보다 훨씬 협소한 개념이 되며 1920~30년대의 한국문학사상 '농민소설'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앞으로 본고에서 다루는 이기영의 소설들은 위의 구분에 의거할 때 농촌소설인 동시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農民小說'임을 전제해 두기로 한다.

이 장에서는 소설 문학의 내용을 구성하는 사회 배경의 구조와 객관적 현실의 다양한 영향 속에서 발현되는 작가의 삶의 구조의 상관관계를 구명하는 기본항으로 당시의 시대상황과 농촌의 실상, 그리고 작가의 체험이 그의 문학에 반영되는 양상을 알아봄으로써 이기영의 초기 농민소설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한다.

가. 프로문학과 농민소설의 관계

프로문학의 전성기로 나타나는 1926년 이후의 한국 문단은 20년대 中期를 넘어 서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세계적인 변화와 한국 사회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문학사적인 흐름으로 볼때 새로운 사조가 사회적으로 품미하기까지는 기존의 환경이나 문단의 영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경우인데 1920년대 중반에 탄생되어 근 10년간 한국문단의 판도를 형성했던 한국의 프로문학은 국내적으로 일제 식민지 하라는 한국사회의 암담한 현실과 전대의 병적 낭만주의, 지식인을 위시한 사회 전반에 깔려있던 암울한 도피주의의 반동에 의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인 현상이었다. 그것은 또한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레닌이 약소 민족의 독립을 주장한 사실에 영향을 받고 사회주의와 연결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려는 경향과 1925년 조선 공산당이 조직된 것 등이 문단의 판도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한

국의 카프의 조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신경향파'의 등장이었다.

1910년 말과 20년대 초의 문학 일반의 특성이 객체 우위로서 민족적인 것에 억압된 비마찰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면 1925년경의 신경향 문학은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그러나 현실의 환멸과 도피가 아닌 현실 개혁의 방향으로 무섭게 나타났던 것이다.

일본군국주의의 점진적인 강화 체제 및 세계적 위기 등으로 우리 민족이 새로운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시기에 이처럼 현실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은 실로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었는데 사회운동으로서는 동아일보가 주축이 된 브나로드 운동과 문화 보급 운동이 있었고 문단에서는 프로 문학 측의 농민 문학과 함께 민족주의 측의 농촌 계몽 소설이 함께 등장하게 된다. 이처럼 민족주의 측과 프로 측에서 일정하게 농민을 소재로 한 문학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소재의 범주를 넘어선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 시기의 한국의 농민 계층이 전체 사회경제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라는 인구 비율의 측면과 이들이 더할나위 없이 빈곤하고 무지했다는 사실은 당시 민족을 염려했던 지식인들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두 입장은 농촌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어떻게 파악하고 해결하려했느냐에 따라서 문학적 형상화에 엄청난 차이를 보였는데 양측의 입장을 잠시 알아본 후 논의를 전개시키는 것이 논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우선 민족주의의 입장은 언론 및 종교 단체의 농촌운동과 연결된 것인데¹⁶⁾ 농촌야학을 중심으로 하는 문맹퇴치운동, 농민·노동자계몽과 생산 향상, 근검절약, 위생상태개선, 폐풍교정 등을 내세우는 등 농민교화운동을 통한 민족의 역량의 신장을 우선시하였다. 이광수, 이무영, 심훈 등의 작품 속에 드러나는 주안점은

16) 민족주의 측의 농촌계몽운동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문자보급운동과 천도교와 기독교 계몽의 농민단체에 의한 계몽 운동 내지 협동조합운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다름아닌 문화적 계몽운동과 경제적 자립운동이었다.¹⁷⁾

그러나 이들은 당시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지역적인 해결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오류를 범한다. 다시 말해서 농민을 사회변혁의 담당주체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각이 전혀 결여된 채 도시 지식인을 내세워 자기 회생적인 계몽운동으로 일관하였다는 점과 일제의 구조적 수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무시한 채 때로는 노골적으로 친일적 경향¹⁸⁾을 드러냄으로써 민족해방운동에 역행하는 역할조차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¹⁹⁾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기영을 비롯한 프로문학 측에서의 농민문학은 농촌의 궁핍의 근본적인 원인이 일본 제국주의의 구조적 수탈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농촌사회의 근본적인 변혁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는 반봉건적 생산관계의 철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걸게 된 것이다.

이것은 민족주의 측과는 상이한 관점인데 일제의 경제적 수탈과 정치, 사회적 억압 아래 신음하던 당시의 한국의 농촌의 실상을 파악한 전술 형태의 하나이다. 그러나 카프는 위와 같이 타당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문학적 형상화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 카프의 農民文學論은 무엇보다 빈농중심의 계급적 입장을 내세워 급진적인 경향을 보였는데 실제의 작품에서 효과적으로 형상화하지 못하여 예술성의 결여라는 비판의 소지를 남기고 말았기 때문이다. 일부 카프의 맹원들 중에는 농민문제의 해결을 통한 민족의 해방의 관점보다도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주안점을 둔 급좌적 경향의 작가들이 다수가 있어 문학적 기량의 성숙보다도 운동의 역량에 힘을 모으는데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

17) 류양선, 「1930년 전후의 한국농민문학론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P.

18) 1992년에 나온 이광수의 「민족개조론」과 최남선의 「조선민시비론」은 그 당시 민족 계몽주의 작가들의 관점을 잘 드러낸다.

19) 이광수는 '조선 민족운동의 삼기초사업' 동광, 1932,2에서 민족운동을 문화운동으로 유도하여 절대독립론, 독립전쟁론의 분위기를 약화시키로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일제 문화운동에 타협하는 글을 발표하여 사회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었다. 이기영을 비롯한 몇몇 작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지도비평이 내세운 이론의 지도에 매몰되어 有産階級과 無産階級을 극단적으로 대립시킨 후 무산계급의 승리라는 도식적 구조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카프 작가들 가운데서도 두드러지게 이기영이 거론되는 이유는 그가 성장 과정의 체험과 일본 유학시절에 습득한 사회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카프의 맹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카프의 이념을 잘 수렴하고 독자적인 창작 기법으로 문학적 형상성이 높은 작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다른 카프 작가와의 구별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나. 20, 30년대의 農村社會의 窮乏化 現狀과 農民의 삶

농업은 한반도 국가 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기간산업으로서 오랜 농경문화 전통의 유지를 가능케 해 왔지만, 기실 농업에 종사하는 한반도 농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국가경제를 주도해 온 그들의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급한 것이었다.²⁰⁾ 과거 봉건사회의 농노적 예속은 관료계급과 봉건제후의 권익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조선조에 있어서도 중앙 진출을 노리는 강력한 지방관료와 봉건 토호들이 야합하여 농촌을 그들의 수탈 대상 지역으로 삼게 됨으로써 농민들이 피폐화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처럼 농민에 대한 수탈의 행위는 1910년대로 넘어오면서 더욱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는데 일제의 침략이라는 민족사적 운명과 더불어 수탈의 주체가 외세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그들의 정책이 “값싼 식량 및 원자재 수탈과 상품판매시장으로서의 식민지 조선의 성격을 반영하여 식민지 조선농업에 있어서 식량 및 원자재 생산의 증가를 위한 과점”²¹⁾으로 수탈 구조를 바꾸면서 빈궁하고 피폐한 농민들의 삶은 더욱 몰락의 길을 걸어야만 했다. 주지하듯, 반봉건적 생산관계로 규정되는 그들의 농촌정책이란 1920년대 초기 실시된 토지조사사업과 산림령 등의

20) 김준, 「한국농민소설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2. P.45.

21) 박현채, 「일제식민지 통치하의 한국농업」, 『한국농업경제와 농민현실』, 관악서당, 1979, P.69.

강제적인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농민들이 갖고 있던 제반 권리, 소작농의 관습상의 경작권, 도지권 등이 완전히 부정되고 대다수의 영세 농민들이 토지를 빼앗기거나 일제가 새롭게 인정한 봉건지주 계급의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됨을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당대 한국농민들은 결집된 힘을 밖으로 표출하는데 익숙해있지 않은터라 일제의 구조적 수탈을 별다른 저항없이 수용함으로써 비극의 단초를 마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후 한국 농민들의 몰락은 자작농이 줄어드는 반면 나날이 소작농이 증가해갔으며 더불어 동양척식회사의 토지매입율도 소작농과 더불어 증가해나가는²²⁾ 제국주의적 수탈구조를 드러내게 되었는데 당시의 농민 계층의 몰락을 백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토지는 사유제도에 의하여 소수의 지주의 수중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대지주는 다만 하나의 지주에 그치지 아니하고 점점 자본가화되어 가면서 상업자본가로 고리대금가로 다시 금융자본가로서 출현된다는 것이다.(중략)

이렇게 몰락된 중농층의 일부와 일반 빈농층은 소작관계에서 $\times\times\times\times$ 주의의 $\text{비}\times\times\text{적}\times\times$ 를 받는 동시에 다시 농작물 가격의 폭락과 다액의 부채(소작인은 평균 120원 내지 200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조선 600여 금융조합의 작년(소화 5년)대출고가 1억2천만원)에 얽매이어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의 일부는 다시 부채미환보소작료저 등을 조건으로 입도차압(작년 중 입도차압 한 것이 1천 3백30여건)이 단행되며 경작권 박탈에 의하여 문자 그대로의 무일물한 농업노동자로 변하게 되고 만다.²³⁾

이처럼 일제의 수탈이 심해지자 농촌의 경제적 압박은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농촌계층의 내분을 가져오는 계기로도 작용하게 되었는데 지주계급의 횡포로 소작민들은 소작권을 떼이지 않기 위하여서는 지주의 파행적인 요구인 강제부역이나 반도덕적인 행동, 또는 수확의 배분에 있어서도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만 했고

22) 淺田橋二 의 7인, 『항일농민운동연구』, 동녘 출판사, 1984, P.101「표13」참조

23) 백철, 『농민문학문제』, 조선일보, 1931. 10. 11.

돈에 대한 갈급때문에 농민들 내부에서도 도박이 성행하고 인심이 부재하는 등 농촌의 제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시기의 한국의 농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을 파는 일' 이외에 별다른 기술이나 살아갈만한 경제적인 방법이 없었기에 더욱 비참한 노릇이었다. 그들은 농촌의 피폐함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소작농으로 전락해 고달픈 삶을 영위하거나 또는 저임금 도시 노동자로 유입되었고 혹은 살길을 찾아 간도 등지로 이주하는²⁴⁾ 등의 몰락의 길을 자초해 나갔다.

1929년 통계에 의하면 도시 생활자의 32.11%가 면세자로서 무직, 극빈의 상태에 이른다. 그 결과 생존권에 대한 투쟁으로 농촌에서는 소작쟁의가 일어나기에 이르렀고 도시에서는 노동쟁의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1920~30년대에 들어와 일제가 그들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중국 대륙으로 넓힘에 따라 수탈의 도가 점점 강해지자 전라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한 남도 지방에서 소작인의 지주에 대한 투쟁과 더불어 본격적인 농민조합의 결성과 소작쟁의가 주를 이루었다는 것²⁵⁾은 그 동기가 농민들의 자발적인 행위였다는 점에서 그렇지만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체념해오던 한국의 농민들이 이 시기에 극도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으며 이에 따른 외부적인 표현들을 감행하였음을 잘 증명해주는 것이다.

다음에 제시한 표를 통하여 당시의 연도별 소작농의 증가와 그에 따른 소작쟁의의 연도별 추이를 고찰함으로써 당대 농민소설이 대동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24) 한 통계에 의하면 1910년 9월부터 1925년 말까지 간도, 만주 등지에 이주한 사람의 수가 278,339명에 달한다고 한다. 간도로 이주한 한국농민의 전형은 최서해의 대표작 「홍염」에서 잘 묘사되고 있다.

25) 淺田喬二 외 7인, 「항일 농민운동연구」, 1984, P.29.

「표1」²⁶⁾ 조선농민의 토지 점유율의 연도별 추세 (單位：千戶)
(증가+, 감소-)

| 년차 | 자작농 | | 겸소작농 | | 순소작농 | |
|------|-----|-----|-------|------|-------|------|
| | 호수 | 증 감 | 호수 | 증 감 | 호수 | 증 감 |
| 1917 | 517 | - | 1,061 | - | 989 | - |
| 1920 | 529 | +12 | 1,016 | -45 | 1,082 | +93 |
| 1923 | 527 | -2 | 951 | -65 | 1,123 | +41 |
| 1925 | 525 | -2 | 895 | -56 | 1,193 | +70 |
| 1929 | 507 | -18 | 885 | -10 | 1,283 | +90 |
| 1932 | 476 | -31 | 742 | -143 | 1,546 | +263 |

「표2」²⁷⁾ 소작쟁의의 연도별 추이(1920-1935)
(단위：건)

| | | | | | | | | | | | | | | | |
|------|------|------|------|------|------|------|------|------|------|------|------|------|------|------|-------|
| 1920 | 1921 | 1922 | 1923 | 1924 | 1925 | 1926 | 1927 | 1928 | 1929 | 1930 | 1931 | 1932 | 1933 | 1934 | 1935 |
| 15 | 27 | 24 | 176 | 164 | 204 | 198 | 275 | 1590 | 423 | 726 | 66 | 305 | 1975 | 7544 | 25834 |

위의 표에서 드러나는 바처럼 1920년을 전후하여 한국의 농촌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양상을 드러낸다. 일제의 구조적 수탈에 의해 자작농이 감소해가는 대신 소작농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 사회의 경제적 압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표2」에서는 당대 농민들의 결집된 힘을 표출하는 소작쟁의가 1920년대 후반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농민소설이 태어나게 된 현실적 조건을 뒷받침해 준다.

26) 김문식 외, 「일제의 경제 침략사」, 「일제하의 한국 연구총서」2, 민중서관, 1984, P.37.

27) 淺田喬二 외 7인, 「항일농민운동연구」, 동녘, 1984, P.29.

이로써 지식인을 자처하는 카프 성원들은 일제히 대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 그 일원이었던 이기영은 수탈과 착취라는 일제 하의 삶의 특징을 반영하고 그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써 작가적 출발부터 농민소설을 쓰게 된 것이다.

다. 李箕永의 幼年時節 體驗과 文學意識

작가에 대한 傳記 研究는 작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더군다나 이기영의 경우 그가 겪어야했던 성장체험은 그의 작품 속에 잘 드러나지만 다른 월북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며 특히 월북 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무하다시피한 상태다.

이 부분에서는 우선 그의 작품의 기초를 '성장 체험'과 카프 가맹'에 있다고 전제했고 또한 연구범위 및 대상이 월북하기 전인 초기의 작품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의 문학의식이 형성되는 카프 가맹까지를 중심으로 삶의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작품을 논의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려 한다.

民村 李箕永은 1895년 忠南 牙山君 挑芳面 回龍里에서 출생하였다. 집안은 덕수이씨 충무공파로써 아버지 이민창은 20세에 무과에 급제한 때로부터 官界에 야심을 품고 서울 유력가의 식객으로 머물며 야심을 실현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집안을 돌보지 않아 가난한 살림은 더욱 심해졌다. 이기영의 진보적 성향에 크게 작용하였으리라 보아지는 아버지는 호탕한 성격에 술을 좋아하는 개화사상가였는데 뒤에 郡守 安琦善(安漠의 아버지)과 함께 天安私立寧進學校를 창립하여 그곳에서 충무직을 맡기도 했다. 시대조류에 떠밀려 완전히 설자리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형세에 따라 그의 집안은 점점 몰락해갔는데, 구한말 식민지 초기 中間階級(신분적으로 양반하층, 경제적으로 中産層)이 밟았던 몰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다.

이기영의 성장기간인 유년기는 나이 4세되던 해 부유한 친척이 사는 天安으로

옮기면서²⁸⁾ 시작되었는데 친척의 땅을 소작하는 살림은 아버지가 없는 집안을 어머니 혼자 도맡아 꾸림으로써 유년기 기억 중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한 인상이 기억 속에 각별히 남아 있다. 이때의 삶의 공간인 천원군 복원면 상, 중, 하임리는 빈농의 화전민들이 주로 사는 곳으로 이기영의 성장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의 소설의 지속적인 무대인 농민 소설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기영의 성장 과정과 문학적 동기는 성장 후에 쓴 몇 편의 회고조 수필에서 직접 밝히고 있다.²⁹⁾

1906년 어머니가 타계하자 그는 ‘마치 광명한 천지가 별안간 암흑으로 변한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후 마음 들 곳 없어 고대소설을 읽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서당에서 공부하다 아버지의 발기로 창설된 天安私立寧進學校에 입학하였는데 이때 신소설 「치악산」을 읽고 그 주인공들처럼 해외유학을 하고 돌아와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활동하는 애국자가 될 것을 몽상하였다 한다. 그리고 14세 때인 아직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이기영 자신의 조혼에 대한 반발인지 그의 여러 작품들에는 조혼에 대한 폐습과 이로 인한 불행한 결혼생활을 그린 내용이 많다. 그후 농사를 짓다가 수년간 남한 일대를 방황하면서 농촌, 광산, 제방 공사장에서 날품을 팔며 무산자 계급의 실상을 직접 체험하였는데 이것은 논산영화이고 교원, 호서은행등에 근무하는 등의 다양한 계층의 체험과 더불어 훗날 작가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다. 이기영의 이러한 행적은 어릴때의 꿈인 해외유학으로 이어지면서 또 한차례 굴절을 겪게 되는데 3·1운동 후인 1922년 4월 초에 친구와 함께 동경유학을 떠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자기의 사상을 표현하고 싶은 충동 때문에 가난한 살림을 무릅쓰고 떠났던 고학의 길은

28) 당시의 이주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뒤에 친척의 소작을 한 것으로 보아 이미 ‘가난한 삶’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9) 「노변야화」, 조선일보, 1934. 1. 14-26, 4회 연재
 「나의 수업시대」, 동아일보, 1937. 8. 5.-8, 3회 연재
 「문학을 하게 된 동기」, 문장, 1940, 2.

그러나 순탄치만은 못했다. 동경 정칙영어학교에 입학했으나 대서소 필생 노릇을 하며 학비를 벌었고 그동안 친구는 노동판을 쫓아다니다가 직업적 사회운동가를 택했다 한다. 작품 중에서도 이 친구의 모습은 간혹 드러나는데 일본에서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다 의식화된 뒤 귀향하여 농민들을 지휘하고 단합시키는 전위적 인물인 「홍수」의 박진성으로 이기영은 묘사한다. 한편 친구로부터 처음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게 되었고 거기에는 고리끼 등 러시아 및 소비에트 작가의 작품을 애독하면서 문학의 꿈을 키워나갔다. 여기서 이기영의 문학관을 지배하게 된 주목할만한 사실은, 다른 카프 맹원들이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 상류계층의 자녀들만이 가능했던 일본 유학을 거치면서 그곳의 사회주의 사상을 접했던 것과는 달리 이기영은 사회주의 체제의 작가의 작품을 읽음으로써 사상을 키워나갔다는 점이다. 이것은 후에 그가 이른바 능한 카프 평론가가 아니라 작품을 통해서 그의 사상을 실천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생활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고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인해 학교를 중퇴하고 귀국하였는데 이기영은 이를 “「고향」의 주인공 김희준이보다도 더 초라하게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 이듬해인 1924년 봄 「開闢」창간 4주년 기념 현상작품모집에 「읍바의 비밀편지」가 3등으로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하게 되었는데 이때 한국 문단에는 이미 사회주의 사상이 태동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시점이었다. 이기영은 등단을 계기로 1925년 봄, 아주 서울로 올라와 胞石 조명희의 알선으로 조선지광사에 취직하는 한편 아무런 사상적 주저도 없이 카프에 가맹하게 되는데 이는 이기영의 창작 생활과 세계관의 발전에 주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카프에 가맹하기까지의 이기영의 삶의 궤적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가 문학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어머니의 죽음이었다.

……내가 만일 모친상을 일찌기 당하지 않았던들 나는 그때 이야기책을 탐독하지도 않았을 것이요, 따라서 문학과는 인연이 멀어졌을지도 모른다. 모친이 생존

했을 때에는 비교적 명랑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일순에 사랑하던 어머니를 여윈 뒤에 나는 자기도 모르게 우울한 성격을 이루어갔다.

모친은 바로 건너다 보이는 안산에다 묘를 썼다. 나는 조석으로 산소를 바라보며 모친을 생각하였다. 밤에 자면서 남모르게 베개를 적신 적도 있었다……³⁰⁾

더불어 불행했던 과거와 함께 그의 유년 시절의 기억으로 강렬하게 남아 있는 것은 가난에 대한 경험과 농촌 생활의 비참함이다. 부친이不在한 집안에 소작을 하여 근근히 여섯 식구가 살아가는 살림은 갈수록 부채만 늘어가는 것으로 서당 훈장의 곡량(수업료)을 못내 ‘의상글’, ‘동냥글’을 배워야만 했으며 종이 한장, 붓 한자루를 살 수 없어 감나무잎을 주어다 글씨를 쓰던 비애를 맛보아야만 했던 그는 “내가 아홉, 열살 무렵에는 빈궁이 극도에 달하였다”³¹⁾고 회고하고 있다.

어머니의 죽음과 가난으로 남아있는 故郷의 概念은 삶의 뿌리에 관련된 것이며 그의 문학의 산실이자 헤어날래야 헤어날 수 없는 ‘운명’ 그것과 다름 아니었다. 그러므로 작가는 경험한 것만 쓸 뿐이고, 쓰고 싶은 것을 쓰는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것을 쓸 뿐인지도 모른다. 이기영에게 있어서도 유년기의 경험은 그의 소설의 소재가 될 뿐 아니라 ‘의로움’과 ‘고독’, ‘가난’을 탈피하기 위한 원초적인 몸부림이었다. 더불어 성장 과정을 통해서 겪어야했던 당대의 여러 삶의 질곡들 또한 그의 문학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보아지는데 이것은 ‘카프에의 가맹’으로 그를 이끌었던 요인이기도 하다.

3. 李箕永 初期 農民小說의 特性和 變貌 樣相

프로문학 운동의 진영 안에서 농민문학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사회운동의 추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1930년 이후 카프가 농민문학을 戰術形態로 내세운 후 유행처럼 당대 작가들이 농민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러한

30) 이기영, 「문학을 하게 된 동기」, 문장 제13호, 1940.2.

31) 이기영, 「나의 수업시대」, 동아일보, 1937.8.5.

사실에 영향을 받은 일이다.

그런데 이에 앞선 1925년 경부터 이기영이 농민소설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음은 주목할 만 하다. 1925년에 나온 「가난한 사람들」과 1926년의 「民村」, 「農夫 鄭道龍」등 일련의 소설들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그의 문학적 본령인 농민소설은 카프가 농민문학을 주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벌써 본궤도에 올라 있었던 셈이다.

이 장에서는 이기영 농민소설의 전개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民村」(1925. 12)을 비롯한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인 「故郷」(1934. 9)까지를 시기별 3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에서 굴절되는 방식과 특징, 성격을 제시한 후 실제의 작품 분석을 통하여 究明하는 演繹的 方式으로 전개하려 한다.

가. 農民의 批判的 現實 認識과 自覺의 世界

- 「民村」, 「農夫 鄭道龍」을 중심으로 -

1924년 「開關」지에 「옴바의 비밀편지」로 등단한 民村은 1925년 8월 카프결성의 주요 멤버로 참여하면서 서울로 올라왔다. 胞石 趙明熙의 알선으로 '朝鮮之光社'에 취직하는 한편 「開關」지와 「朝鮮之光」誌를 중심으로 일련의 경향소설을 활발히 발표하여 창작 생활과 세계관의 발전에 주요한 전환점을 만든다.

이 시기의 작품들에는 「가난한 사람들」, 「쥐 이야기」, 「농부의 집」, 「어머니의 마음」, 「民村」, 「農夫 鄭道龍」 등이 있는데, 이들 작품에서 드러나는 빈궁의 묘사는 관념이 덜 다듬어진 생경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지만 신경향파의 생활문학론의 실천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작품「민촌」은 충청도의 향교말이라는 농촌을 배경으로 친일 지주 박주사 집안의 착취와 횡포, 소작 농민의 궁핍한 생활과 자각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기영이 이 작품에서 착취의 근본으로 설정해 놓은 지배계급인 박주사 집안은 봉건적 잔재가 남아 있는 식민지 지주로서의 전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박주사는 향교말 40여 호의 民村에 동척 마름이며 면협위원이고 금융조합 서기직 등의 감투를 다

쓰고 있으면서 온갖 횡포를 부린다. 박주사의 아들은 소작권을 미끼로 마을의 부녀자를 상대로 축첩행각을 태연하게 자행하고 심지어 16세의 어린 소녀 점순이까지 벼 두섬으로 맞바꾸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점순에게 있어 이 상황은 어떤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릿고개를 넘겨야 한다는 생존의 절박함과 부친 김침지의 우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다. 이에 대하여 안함광은 ‘부르의 승리와 프로의 굴복’³²⁾이라고 지적하고 이 작품에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음을 비판한다.

이 시기 이기영 소설에 반영된 농민들의 삶은 폐쇄적이고 절박한, 고립된 농촌 공동체 내부에서 더욱 피폐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적 수탈 구조 속에서 경제외적 강제라는 봉건적 착취까지 당하는 소작농의 모습이 여실히 그것을 반영해주고 있다 하겠다. 그런데 이 작품은 지주와 소작농 사이에 매개적 존재인 지식인이 설정되어 궁핍의 사회적 원인을 제시함으로써 농민의 계급의식을 일깨우고 농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계몽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한말로 할 것은 돈이 쌀이 아니요, 돈이 옷감이 될 수 없는데—또한 그 쌀이나 옷감을 가만히 앉은 사람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닌데—어찌해서 누구나 손가락 한 까딱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돈이라도 종이조각만 가지면 당장에 부자가 되느냐? 그게 벌써 틀린 일이다. 가령 지금 쌀 한 말에 이원을 한다면 그 쌀 한말을 만들어내기에는 봄으로부터 가을까지 전후 비용이—더구나 남의 장리를 얻어서 농사를 진 사람으로서는 지금 그 값에 몇 동감이 더 들었을 것인데 이러한 품값 든 생각을 않고 장사하는 놈들이 제 맘대로 값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일도 불공평한 일이다.……³³⁾

이 소설의 지식인인 서울대이라고 불리는 창순이 농민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지식인인 창순은 농촌의 폐쇄성과 고립성을 타파하고 ‘發展’의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적극적인 인물로서 그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농촌을 계몽

32) 안함광, 「농민문학문제론」, 조선일보, 1931. 10. 27.

33) 이기영, 「민촌」, 《카프대표소설선 1》, 사계절, 1988), P.206-207.

하는 지식인 창순의 역할은 농민들이 아직 미몽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선취된 지식을 가지고서 농민을 설교하는 부분에서만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서 당대의 李光洙 류의 계몽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드러낸다. 더군다나 창순은 당시의 농촌문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민족해방이라는 문학운동의 관점으로 해결하려 하지않고 기존의 농촌공동체에 대한 복귀를 꿈꾸면서 만인을 위한 만족과 행복과 조화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아나키즘적인 사상에 빠져있다는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극단적인 오류를 범한다.

아나키즘적 유토피아는 1926년에 발표한 「쥐 이야기」나 「農夫 鄭道龍」에서도 나타나 당시의 작가의 사상이 아나키즘에 경도되었음을 구체화한다. 작가는 상민들의 마을 속에 내재한 계급 모순, 혹은 그것들을 가져오는 삶의 애환이나 고통 등을 다루면서 젊은이다운 사랑의 열병에 빠지거나 방아찝기, 길쌈 등의 흥겨운 노동요를 삽입하여 목적의식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게 아닌, 무력한 농민의 편에서서 농민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휴머니즘적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고 있다.

이 시기에 발표되었던 또 하나의 대표작 「農夫 鄭道龍」은 당대 농촌사회의 핵심구조와 긴밀히 관련되면서 비록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이고 올바른 전망을 제시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제적 인물을 창조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農夫 鄭道龍」의 무대도 마찬가지로 民村이다.

주인공 정도룡은 청직이었던 아버지가 백정의 딸 아니면 무당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식으로³⁴⁾ 전문이 넓고 남다른 생명력과 인생 경력을 지녔으며 건강한 체력과 의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경외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다. 작품에서 지주로 나오는 김주사는 도평의원, 전 금융조합장, 전 보통학교 학무위원, 전 군참사, 적십자사 정사원, 지주회 부회장 등의 감투를 쓰고 있는 위인이다. 그는 당대 지주층의 구조적 특징을 전형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인물로서 소작인들을 제집 하인처럼 부려먹을 뿐만 아니라 또 소작인의 소작권을 자신의 이해에 의해 마음대로 빼앗아버리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 소설의 한계는 도시를 체험한 전위적

34) 이기영, 「농부 정도룡」, 개벽, 65호, P.68.

인물의 귀농 활동을 통해 농민들에게서 프로의식을 적극 주입시킨다는 작가의 의도가 지나쳐 주인공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투쟁 행위를 용감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영웅화시켜버리는 점에서 드러난다.

또한 이 작품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작가의 아나키즘적 세계관이다. 앞서 「民村」에서도 드러났지만 작가는 현 단계의 농촌의 모순이 지주·소작인의 대립 관계를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막연하게나마 농촌을 도시와의 연계 속에서 국가적 단위와 연관시키지 못하고 폐쇄적인 농촌 공동체의 단위로 파악함으로써 국가와 체제를 비판하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한계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民村」과 「農夫 鄭道龍」으로 대변되는 이기영의 제1기 소설들은 작가가 농민들의 삶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공동체주의라는 작가의 이데올로기가 직설적으로 드러나는 매우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民村」은 農民小說을 지향하는 이기영의 첫 작품으로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농민계층을 계급적 관점에서 파악하였는데, 이것에 의해 작가의 세계관이 드러나고 있으며 우리는 1920년대의 농촌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의 정당성을 확인하게 된다. 「民村」은 한 마을의 농민적 공동체를 단위로 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농민적 삶의 양상을 다양하고도 폭넓게 구현하고자 했던 점, 이 시기 농민들의 비참한 삶을 지주·소작인의 대립이라는 역사적 모순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농민 계층의 계급적 각성이라는 이 시기 농민 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처음으로 작품화한 것이라는 점, 지주·소작인의 대립이라는 당대의 구조적 모순을 최초로 폭로하고 폐쇄적인 농촌 공간을 열려진 세계로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매개적 인물을 설정하여 그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 등에서 이 시기의 다른 소설들과 두드러지게 구별된다.

「農夫 鄭道龍」은 농민 속의 문제적 인물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창조하였다는 데서 리얼리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당시의 계급집단을 대표하는 김주사와 농부 정도룡을 중심으로 지주의 소작권의 횡포라는 당대 농촌 사회의 핵심을 최초로 제시하였으며,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기만 하던 농민이 처음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농민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그것이

다. 그러나 작가의 의도가 지나쳐 주인공을 영웅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사건의 해결방법에 고대소설로 돌아간 듯한 느낌마저 준다. 또한 소설의 주제가 개념화되지 않은 감정의 표출에 머물러 있으며 역사적 전망을 획득하지 못한 채 농촌 공동체와 추상적 유토피아를 회구하며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카프문단에서 아직 아나키즘과 마르크스주의가 유착되어 미분화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나. 農民의 集團意識의 生成과 抵抗의 具體化

-「洪水」, 「賦役」을 중심으로-

1927년 초 카프는 최초의 이론논쟁인 내용·형식 논쟁을 거치면서 '자연생장으로부터 목적의식성으로,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라는 사회주의 운동의 방향 전환에 힘입어 소위 제1차 방향전환을 하게 된다.

이기영은 카프가 제1차 방향전환을 하면서 핵심멤버로 부상하여 누구보다도 당의 지침을 잘 알았던 작가였다. 따라서 이 시기 이기영의 소설은 작가의 독자적 작품세계의 발전에서 나타나는 연속성과 카프의 창작방법의 수용이라는 시의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야 그 정당한 의의를 획득할 수 있다.

이기영의 前代 소설이 농민집단의 공동체적 형상화가 우위를 점하고 리얼리즘의 역사적 측면이 제시되지 않는 한계를 노출했다면 이 시기 이기영의 소설들은 소작농민의 궁핍한 삶이 그 전대보다 훨씬 세련되며 풍부한 필치로 그려져 나갔으나 불세비키 創作方法論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목적의식이 한층 강해지고 전망의 제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밋머느리」, 「원보」, 「조희프는 사람들」, 「洪水」, 「賦役」 등이 이 시기에 산출된 작품인데 전대 작품에 등장하는 농민들의 폐쇄적, 보수적인 면에서 탈피하고 전위적 인물에 의해 농민 계층이 프롤레타리아군으로 조직화하는 경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이전에 비해 확고해진 작가의 의식이 돋보인다. 특히 「農民小說集」(1933)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 일컬어지는 「洪水」는 前衛의 人物의 媒介에 의해 농민들이 숙명적 체념을 극

복하고 자신의 열악한 처지를 깨어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 시기의 「民村」과 「農夫 鄭籟龍」이 농촌 현실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신경향파문학에서 프로문학으로 이행하는데 발전적 계기로 작용했다면 「洪水」, 「鼠火」는 이러한 계열의 연속선상에 위치하면서 동시에 더욱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洪水」에 나타난 당시의 농촌 현실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아래 골목 간난네 집도 이렇게 죽을 지경이어서 그의 부친은 어린 간난이를 올 봄에 제주도 섬에서 온 배사공에게 좁쌀 한푸대를 받고 팔아 먹었다…한참 춘궁 무렵이라 보리고개를 압둔 마을 사람들은 모다 양식이 떠러져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들은 돈에 갈급이 났다. 그래 무슨짓을 하든지 돈을 버러보라고 발버둥이를 쳤다. 흑뿔이 김서방은 간밤에 뽕동산에서 금뎡이를 주슨 꿈을 꾸었다고 망치를 둘러메고 산으로 치다렀다…투전 잘하는 원식은 린근통으로 노름판을 차저단났다…광성이는 점순네가 몰내 술을 해먹는 것을 군청 술조사 단이는 관리에게 밀고하였다. 그는 범측자를 고발하면 XX의 눈에 잘 보여서 논마지거나 어더불가 함이었다…그러나 광성이는 밀고했다고 땅 한 되지기를 엿지 못하였다……³⁵

궁핍할대로 궁핍해져서 인간성이 무시되고 인심이 부재하는 K강가 T촌이라는 民村의 열악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 마을은 열다섯의 나이에 방적공장의 노동자로 T촌을 떠났던 박건성이 일본에서 귀향하면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다. 그는 일본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며 투옥까지 경험하게 되는 상당한 수준의 지식인인데 이 마을의 폐쇄적이고 무비판적인 농민들의 심층부를 자극하여 T촌을 각성시키려는 전위적인 매개인물이다. 이기영이 평범한 농민이지만 노동자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위적 매개인물을 만들어낸 이유는 당시 중요과제였던 노농동맹을 추구하려는 작가의 적극적 노력과 동일한 맥락에서 농민계층을 노동자 계급으로 이해하려는 작가의 의도 때문이다. ‘勞動組合’의 결성이나 ‘靑年會’조직 등을 통해 농민계층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도모하고 그들이 공동운명체임을 느끼면서 서로

35) 「홍수」, 이기영, 『농민소설집』, 별나라사, PP.12-13.

결속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도 달라질 줄 모른다. 그래서 농민들은 마침내 소작쟁의를 일으킴으로써 문제에 정면으로 대결한다.

이것을 소설의 전개에 따라 구조화해보면, 〈前衛 知識人の 登場〉 → 〈前衛와 農民들의 유대〉 → 〈前衛에 의한 登場人物들의 團結〉 → 〈組織的 鬭爭〉 → 〈目標 達成(小作爭議)〉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당대 카프의 창작 유형이 그대로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賦役」은 부당한 노동인 賦役을 강요하는 강참봉의 횡포에 대하여 소작인들이 일어서게 되는 과정과, 이를 통하여 소작쟁의와 농민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농민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소작쟁의를 일으키는 과정이 당대 현실인 「賦役」이라는 상황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洪水」의 우연적 상황보다는 훨씬 실감이 난다. 그러나 「賦役」은 전형적 상황을 잘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이끌어가는 媒介의인 힘이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인물의 유기적 통일을 이루지 못해 전망의 부재라는 부정적 측면을 노정한다. 이것은 당시의 카프 소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인데 블세비키화론에서 제시된 창작지침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념적 선취의 과도함을 잘 소화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기영의 제2기 소설들은 1927년 카프의 방향전환 이후에 발표된 소설로서 블세비키화에 따른 당대의 勞動爭議나 小作爭議를 현실의 역사적 발전과정 위에서 그리려는 적극적인 모색들이었다.

「洪水」는 목적의식기에 발표된, 카프 진영에서도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힌 역작이다. 한편 작품 전개상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전대애의 극복이라는 확고한 의지가 돋보이는 형태를 보여준다. 특히 노동자화된 전위적 인물이 투입되어 농민들을 결속시키고 결국에는 농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쟁의를 일으키는 방식은 당시의 사회주의 방침인 노농동맹의 구조인데 이렇게 농민들이 소작쟁의를 일으키는 모습을 최초로 형상화한 점은 현실의 반영 구조이면서 동시에 작가의식이 치열함을 드러낸 것이다.

「賦役」은 「洪水」의 우연한 상황을 극복하고 당시 농촌의 계급관계의 모순에 따

른 부당한 관행이었던 賦役을 소재로 농민들의 집단화 과정과 쟁의과정을 치밀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이기영의 이전의 작품이 전위적 인물을 중심으로한 독자적 깨우침의 구조였다면 이전의 작품들과는 달리 농민집단을 작품의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 농민들의 이기심이 극복되어 한 집안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려는 모습을 제시했다는 점이 독특하다.

이기영은 문학적 출발부터 프롤레타리아 작가이자 스스로 농민작가임을 자부하여 꾸준히 농민소설을 추구해왔는데 1930년대 초반에 이르러 문단에 농민문학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카프의 지도 비평에 매몰되어 잠시 주춤하기도 했다. 「洪水」, 「賦役」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의 작품들은 그러므로 이기영의 독자적 세계관의 발전을 드러내는 작품들인 동시에 카프와의 공동창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農民의 積極的 集團 對應과 展望의 提示

- 「鼠火」, 「故郷」을 중심으로 -

이기영의 短篇小說을 통해 우리는 조선의 농촌이 일제의 침략에 의해 구조적으로 피폐화해가는 과정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기영은 이러한 短篇小說에서의 경험의 축적에 의해 독자적으로 長篇小說에의 길을 열었는데 이것은 이기영 소설의 변모과정을 고찰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1924년 문단에 데뷔한 이래, 식민지 자본주의하에서 양극분해되어 몰락하는 조선 농민의 현실을 그려왔던 그가 「鼠火」와 「故郷」을 각각 중편과 장편의 형식으로 썼던 이 시기는 「民村」으로 시작하여 「農夫 鄭道龍」, 「洪水」, 「賦役」 등을 거치면서 습득한 단단한 창작기법과 점점 복잡해지는 당대의 현실에 대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서사화 경향을 띠는 ‘完熟期’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1933)에 연재되었던 「鼠火」는 그의 대부분의 작품처럼 조그만 농촌을 배경으로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그의 작품과 다른 점은 地主·小作人만이 등장하던 지금까지의 농민소설 양식에서 더 나아가 지주와 자작농, 그리고 마름과 지식인, 농민의 전형으로서의 주인공 등 당대 농촌 사회의 계층 구조를 폭넓게

다두고 있는 점에서도. 즉 전대에서 두드러졌던 적극적인 주인공은 의미를 상실하고 그대신 작가가 새롭게 만든 농민들이 의식의 전이를 통하여 각 개인들의 전형형을 추구하고 이들의 공동체 놀이를 통하여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다.

김침지는 소시적에 끝패도 해 보고 투전도 해서 남의 돈을 따먹기도 하고 계 돈을 잃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때 시절과 지금 시절은 시대가 다르다 하였다. 예전 시대에는 살기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심심풀이로 도박을 하였는데 지금은 모두 돈에만 욕기가 나서 서로 뺏어먹으려는 賊心을 가지고 노름을 한즉 그것은 벌써 심사가 틀린 것이라 하였다.³⁶⁾

그런데 이처럼 자본주의의 병폐가 만연하고 인심이 흉흉해진 마을에도 젊은 남녀의 열기와 정열이 매개가 됨으로써 소설의 긴장감이 확보되고 있다. 임화는 그 당시 「鼠火」에 대한 창작평에서 이 작품이 농민 계층의 생활상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농민의 심리적 측면을 치밀한 묘사와 서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농민 계층이 지니고 있는 두가지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평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농민계층의 두가지 속성은 일찌기 레닌이 지적했던 바로서 첫째, 농민은 끊임없이 프롤레타리아트화하게 운명지워져 있다는 점 둘째, 한편으로는 소소유자적 속성을 끈질기게 간직하게 마련이라는 양면성을 가리킨다.

장르적 논의와 함께 「鼠火」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은 이기영의 農民小說의 일관된 구조를 파괴한 점인데 이것은 장편의 초두로 기획했던 작가의 의도를 더욱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준다. 즉 〈궁적적 인물의 등장〉 → 〈지주-소작인의 대립〉 → 〈매개 상황의 부여〉 → 〈계기 부여〉 → 〈소작쟁의〉라는 목적의식기 이후의 農民小說의 서사 구조가 「鼠火」에서는 파격적인 모습을 띄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鼠火」는 〈전형적 농민의 등장〉 → 〈농촌의 궁핍화 묘사〉 → 〈매개 상황의 부여〉 → 〈지식인의 등장〉 → 〈구습의 폐해 비판, 새질서 제시〉의 구조를

36) 이기영, 「서화」, 『카프대표서설선』2, 사계절, 1968. P.153.

지니고 있다. 이미 제시한 이기영 소설의 서사 구조가 그뒤에 나온 작품 「故郷」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때 「鼠火」의 구조는 더욱 파행적이다. 유독 「鼠火」만 年次의인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의 구조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고 본다.

두번째로 살펴볼 작품 「故郷」(조선일보, 1933~34)은 일제 강점기에 생산된 최고의 농민소설이다.

「故郷」에는 그 전대의 소설에서 볼 수 없었던 자본주의 문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농촌의 모습이 처음으로 제시된다. 이것은 제 1기 작품에서 폐쇄적인 농촌의 모습이 제시되고, 제 2기 작품들에서 전위의 주인공을 통해 폐쇄적인 농민들로 하여금 간접적인 방식으로 도시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전망을 내포하게 하는 방식에서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원터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처음으로 철도와 제사공장을 접하게 되고 그곳에 취직하게도 되는 일상생활로 이어진 것이다. 이것은 농민들의 일상생활 속에도 자본주의 문명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음을 뜻하며 한편, 닫혀진 세계가 열림으로써 농민들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넓히게 됨을 말한다. 이것은 또한 이 시기 농민운동이나 민족해방운동의 주체가 전위 주인공에서 당시 모든 농민대중으로 바뀌고 있음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기영의 작품 세계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전체 변혁운동의 성장과도 맥락이 닿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리얼리즘의 성취라는 작가 자신의 필연적 변모과정과도 연관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故郷」이라는 텍스트는 초기 農民小說인 「民村」으로부터 시작하여 「賦役」과 「洪水」, 중편인 「鼠火」를 거치면서 완성된 텍스트인데 작가는 이 작품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성격을 확장, 구체화하고 조정함으로써 좀더 폭넓고 전형적인 주인공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즉 「故郷」의 김희준은 「民村」의 창순, 「洪水」의 박건성, 「鼠火」의 돌쇠를 거치는 10년간의 이기영의 작품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자생적 지도자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이 '전형적 인물에 의한 전형적 상황'의 표현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등장인물의 관계를 살펴볼 때 地主·小作人の 대

립관계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장편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인물들의 계층관계 즉, 당시 결코 적지 않은 부유했던 中農이나 自作農 등 농촌 中間層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목적의식기의 도식적인 구조가 「故郷」의 구성 방식에 도입되어 스스로 작품의 전망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상에서 이기영의 초기 농민소설 중 3기에 해당하는 장편소설을 고찰해 보았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영향을 받은 「鼠火」는 장편을 지향했던 작품인데 목적의식성을 극복하고 예술성을 우위로 하여 농민의 전형인 「돌쇠」를 창조하였으며 전대에서 두드러졌던 전위 지식인의 역할이 줄어드는 대신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켜 사라져가는 전통풍습과 대체된 오락인 ‘도박’을 중심으로 농민들의 폭넓은 생활을 유려한 필치로 묘사한 작품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비록 구체성을 띠지는 못했지만 「故郷」의 선편이 되었다는 점에서 一期를 획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故郷」은 식민지하의 농촌을 총체적으로 그려내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작가에게 있어서는 이전의 문학 행위에 대한 총결산 또는 그의 성장 체험의 총체화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아래의 「표」를 통하여 요약해 보기로 한다.

「표」 이기영 초기 농민소설의 변모 양상

| 각 단계별 작 품 명 |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변모양상 | 작가의 현실 인식의 변모 양 상 | 작품의 구조적 특성과 변모 양상 | | |
|--------------------------|----------------------------------|-------------------------------|----------------------------|----------------|------------------------|
| | | | 주제의식 | 자중인물 | 구성과 기법 |
| 제1기: 「민촌」 「농부 정도롱」 | 식민지적 경제구조와 지주-소작인의 대립 | 농촌 현실의 구조적 모순 파악 | 현실의 폭로 와 농민의 현실 인식 | 매개 인물의 동 장 |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 |
| 제2기: 「홍수」 「부여」 |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형성과 민족해방운동 의 전개 | 무산자와 유산자의 대립과 갈등 | 농민의주체적 자각과 계급 투쟁 | 완결된 斷斷의 도입 | 비판적 리얼리즘 (서술 중심) |
| 제3기: 「서화」 「고향」 | 일제의 탄압에 의한 변혁운동의 침체와 내면화 | 현실의 총체적 인식 (작가 의식의 내면화) | 노동동맹과 농민의 적극적 집단적 대응 | 전형적 인물의 창 조 | 사회주의 리얼리즘 (묘사중심) |

4. 李箕永 初期 農民小說의 文學史的 意義

앞에서 본고는, 1920~30년대의 이기영 초기 농민소설의 전개양상을 살펴보았다. 이기영은 일제의 수탈에 의한 1920~30년대 농촌의 구조적 모순을 잘 알았던 농촌 체험의 작가였다. 그러므로 당대의 현실을 리얼리즘 기법에 의해 형상화했던 그의 농민소설에는 계국주의에 의한 한국 농촌의 피폐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해온 고찰을 토대로 文學史的 意義를 정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기영의 초기 농민소설은 프로 문학 이론을 가장 성공적으로 작품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년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농촌의 궁핍화는 민족의 현실을 타개하려고 애썼던 당시의 지식인들에게는 큰 관심의 영역이었다. 따라서 진보적 지식인 집단이었던 '카프'내에서의 이러한 관심은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타개책으로 제시되는 이론은 상당히 과학적 수준에 올라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문학적 형상성을 갖춘 작가가 없다는 카프지도부의 고민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것은 이기영을 통해 비로소 해소될 수 있었다. 이기영은 다른 카프 작가들이 범했던 관념적 과격성을 비교적 드러내지 않으면서 식민지 농촌을 해방하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각 계급 또는 농민집단이 어떻게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이는가를 전형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이기영의 초기 농민소설의 창작기법인 리얼리즘은 당대의 최고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다.

프로문학에서 내세워진 리얼리즘은 그것이 비록 외국의 이론을 그대로 모방하고 수용하는 차원에 머물렀지만 세계관과 창작기법의 문제를 함께 규정하는 이론적 지침이 되었다. 이것이 대개의 작가들의 경우, 문학과 정치를 동일한 수준에서 논의하게 만든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이기영에게 있어서 리얼리즘은 작가 정신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故郷」의 김희준이 농민들과 더불어 함께 고민하고 때로는 당시의 조혼의 피해자로서 아내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며 애정관계로 번민하거나 동네 연장자의 조언에 따라 새롭게 각성하여 청년회를 재정비 하는

등 지식인의 모습을 상당히 섬세하고 리얼한 필치로 그려나갔다는 점에서 그는 독특한 기법과 예술성 뿐만 아니라 창작 정신에서도 리얼리즘에 입각한 작가라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여타 작가들에 비해서도 뛰어난 것이었다.

셋째, 이기영의 초기 농민소설들은 前代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형식의 농민소설들이다.

이것은 제3장을 통해 구명된 사실이거니와 필자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소설사에서 이기영 이전에 농민소설을 쓴 작가가 아무도 없었다는 점, 이기영의 작가적 출발이 농민소설에 있다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작가가 창작에 대해 가지는 준엄한 태도는 식민지하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게 하였으며 그것을 새로운 기법에 의해 형상화하는 창조적 능력까지 겸비한 보기 드문 작가였다.

넷째, 이기영의 농민소설들은 일제하 프로문학의 가장 뛰어난 성과이자, 당대 민족문학의 한 정점이다.

이러한 점들은 이기영의 초기 농민소설의 위치가 1920~30년대 한국문학사에서 재정립되어야 하는 뚜렷한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5. 結 論

지금까지 이기영의 초기 작품을 세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즉 식민지 체제의 강화와 카프문학운동의 변모과정, 그리고 작가의식의 변화에 따라 그의 초기 농민소설의 전개양상을 고찰함으로써 당시 문학운동에 대한 이해와 민족문학으로서의 이기영 초기 농민소설의 관계를 구명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기영의 초기 농민소설의 특징을 시기별로 고찰하고, 그것들에 상응하는 소설이론과의 관계를 구명하는 한편 작가의 내면세계의 변모 양상도 추적해 보았다. 그 내용을 결론삼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기영의 농민소설을 쓰게 된 배경은 ①. 카프 가맹 ②. 당대 농촌의 궁핍화와 구조적 모순. ③. 이기영의 성장과정의 체험 등의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당시 시대상황과도 밀접한 이 세가지 배경은 유년기의 가난과 농촌 생활체험, 일본 유학시절의 체험, 젊은 날의 방황과 직업을 전전하며 얻은 무산자 계급으로서의 체험 등을 낳았는데 그는 이것을 작품의 소재로 취하고 있다. 그리고 작품의 전개과정과 밀접한 카프에의 가맹은 식민지하 농촌의 실상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계관을 갖게 된 동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로써 이기영은 농촌의 구조적 핵심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한 민족주의 작가로 드러난다. 당시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려는 몸부림으로써 농민소설을 썼던 점과 이것을 문학예술로 형상화하려했던 리얼리즘 정신은 다른 카프작가와와는 다른 독특한 문학세계를 구축하게 되었던 요인이 되었다.

둘째, 이기영의 초기 농민소설은 문학 내적 발전이라는 독자적 체계와 카프 문학운동의 과정에 의해 발전하고 변모한다. 이기영 농민소설을 이끌어 온 이 두 사상은 1925년 8월 카프가 성립되고 1935년 5월 해체될 때까지 그의 소설의 정신 사적 축이 된다.

제 1기의 농민소설은 그의 작가적 출발이 농민소설에 있음을 보여준다. 본격적인 문학이론의 영향없이 일제 침략에 의해 사회구조가 식민지적 성격으로 재편된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民村」과 「農夫 鄭道龍」은 신경향파의 특징인 절망적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나 농촌 공동체를 부르짖는 주인공을 내세우는 등 사상의 혼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반봉건적인 생산관계로 드러나는 농촌의 구조적인 모순을 처음으로 폭로하였고 문제적 인물을 설정하여 농촌과 도시를 연계하려 했으며 농업 문제해결을 위한 모색으로서 문학예술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라는 데서 농민소설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작품들로 평가된다.

제 2기 농민소설은 전대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아나키즘을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카프 문학운동의 '목적의식'에 해당하는 이때 카프에서도 문학예술에 당의 지침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 카프작가의 서사구조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洪水」, 「賦役」의 서사구조는 <궁적적 인물의 등장→지주·소작인 대립→매개 상황의 부여→계기 부여→소작쟁의·지주 타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이후 이기영 소설의 기본 골격이 되고 그의 농

민소설의 비약적인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구조를 통하여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이기영의 제 2기 농민소설은 현실에 대한 집단적 대응방식과 세계관의 뚜렷함을 보여주고 있으나 전위적 매개인물을 농촌에 투입하여 노동동맹을 통한 농촌의 변혁을 일으키려는 작가의 의도가 지나쳐 독자적인 작품세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형상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되었다.

제 3기 농민소설은 전형적 상황 하에서 전형적 인물의 창조를 통해 리얼리즘이 성취된 모습을 보여준다. 본격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영향을 받은 「風火」는 목적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카프 지도부의 혹평을 받았지만 전위적 매개인물의 역할이 감소되는 대신에 농민의 전형을 창조하여 농촌변혁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한 마을의 농민들 다수를 폭넓게 형상화하여 장편소설이 요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故郷」은 이 시기 이기영의 농민소설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성과이다.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내적체계는 등장인물과 구조라 평가할 수 있는데 초기 단편에서 불분명한 사상의 혼란과 전망을 드러냈던 주인공과 지주·소작인의 도식적 설정은 중편과 장편을 지향하면서 점차 극복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초기에 두드러졌던 전위적 매개인물의 역할이 감소되는 대신에 전체 농민대중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으며 폐쇄되고 보수적이던 이들에게 열려진 세계를 제시하고 그들을 농민문제의 해결의 주체임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故郷」 역시 당대의 완전한 전형에는 다다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선택한 구조의 한계로 분석되는데 당대 민족문학의 최고 작품으로 평가되면서도 이러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당대 민족운동의 한계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의식기의 단편소설에서부터 선택한 이기영 소설의 구조는 이기영의 농민소설들이 카프의 이론을 실체화하는 데는 중요한 몫을 했지만 예술성을 평가하는 문학내적 체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가 극복해야 했던 대상이자 한계였던 것이다.

민촌 이기영은 1920~1930년대 농촌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지식

인 작가로서 식민지 한국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여러 집단의 노력과 그 현실을 그리려고 했으며 그의 작품들은 당시의 운동에 대한 선진적 입장에서 민중적,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그를 자연스럽게 리얼리즘의 길로 끌어나갔는데, 우리 문학사의 1930년대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점에 바탕을 두어 새롭게 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